

다큐멘터리 “몽 라 페루즈의 신비”: 블랑팡이 후원하는 탐험을 조명하다

블랑팡 매뉴팩처가 다큐멘터리 “몽 라 페루즈의 신비(The mysteries of Mont La Pérouse)”를 소개한다. 이 다큐멘터리는 해양 생물다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질학적 형성의 한 종류인 해산(seamounts)을 주제로 한다. 전 세계를 통틀어 이 심해 산이 수십만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지만, 이 지형 수백 개 정도만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. 로랑 발레스타는 블랑팡의 후원과 함께 레위니옹 섬(Reunion Island)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진 해저로 향했고, 그곳에서 해양학자에게도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몽 라 페루즈의 비밀을 발견했다.

이 산의 기반은 해수면 5000m 아래 해저에서 발견할 수 있다. 점점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등장하는 곳에 이르러 물 표면에서 수십 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바다 수심이 극적으로 줄어든다. 이 지점이 바로 몽 라 페루즈다.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에 비교될 정도로 큰 해저 화산 구조라 할 수 있다. 이 기형적인 지질 구조물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는 레위니옹 어부들 사이에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다. 하지만 해양 학자들에게 이곳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.

완전히 잠기기 전에는 섬이었던 몽 라 페루즈 역시 전 세계 다른 지질 형태처럼 인도양 중간에 따로 자리하고 있는 덕분에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 은신처와 먹이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곳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며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등 많은 동물이 이동할 동안 쉴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한다. 해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은 특히 다양하고 독특하다. 실제로 이곳에서 자라는 많은 생물들을 다른 곳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. 몽 라 페루즈는 바다 생태계 균형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. 따라서 이곳을 과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
2019 년 11 월 로랑 발레스타는 현지 연구가들과 그의 곰베샤 다이빙 팀 일부와 함께 라 페루즈 해산의 특별한 생물다양성에 대해 조사하고, 규정하고, 연구하는 원정을

Corporate: www.blancpain.com / BOC: www.blancpain-ocean-commitment.com

Press Lounge: www.blancpain.com/ko/press-lounge



이끌었다. 곰베싸 원정을 비롯해 프랑스 생태학자 겸 수중 포토그래퍼 로랑 발레스타의 다른 많은 해양 미션의 창립 파트너인 블랑팡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 기념비적인 탐험을 통해 그들은 위대한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. 모든 곰베싸 원정과 마찬가지로 이 탐험은 세 가지 주요 원칙을 품고 있었다. 과학적 요소, 다이빙에 있어서의 도전, 이제까지 보여준 적 없는 이미지 포착 등이 그것이다.

과학적 도전은 서식지 연구와 동식물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주된 임무였다. 관찰 자료 및 사진을 축적하고 생태학적, 지질학적 샘플을 채취한 것은 물론 로랑 발레스타와 그의 팀은 카메라와 수중 음파 탐지기 등의 한층 발전된 기술력을 동원하며 몽 라 페루즈의 생물다양성을 분석했다.

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잠수부들은 복잡한 잠수 조건에 적응해야 했다. 그 곳은 망망대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거의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. 심지어 잠수가 이같은 망망대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지표면에 가까운 산호초를 통해 돌아갈 수 있는 옵션도 주어지지 않았다. 이는 즉 아무런 시각적 지표 없이 해류의 영향까지 그대로 받으며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. 수심 60m 에서 가장 길게 잠수한 것이 한 시간, 110m~140m 수심 사이에서 30 분이었다. 매일 상승과 감압 과정이 3 시간에서 5 시간 정도 이어졌다.

몽 라 페루즈 탐험을 통해 희귀하고 멋진 이미지들을 다수 얻을 수 있었다. 이 이미지들은 다큐멘터리 “몽 라 페루즈의 신비” 이외에 연구, 과학 발행물에서도 만날 수 있고, 사진 전시로도 선보일 예정이다. 로랑 발레스타와 블랑팡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바다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있어 해산의 중요성, 그리고 해산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깨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.